



발간자료

• **조선 Weekly:** 선가: LNG선 신조선가는 246.5백만달러로 4주 연속 하락했지만 VLGC는 115.5백만달러로 2주 연속 상승. VLCC, 수에즈막스 중고선가는 3주 연속 상승하며 신조선가를 크게 웃돌음. CMT.Tech는 중국에서 건조 중인 VLCC를 역대 최고가였던 200백만달러를 훌쩍 넘는 250백만달러에 리세일로 내놓음. LNG: LR은 200k-CBM LNG선을 받을 수 있는 터미널이 88개로 174k-CBM급(97개)에 육박했다며 200k-CBM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 Hoegh는 신조 인도기간 단축으로 타당성이 올라갔다고 개조뿐 아니라 신조 LNG-FSRU 발주도 검토 중. GasEntec은 삼성중공업과 독자 액화기술 SENSE 라이선스 MoU를 체결. 수주: Maersk가 중국에 18,600-TEU 26척(Hengli 20+옵션 12척, NTW 6척) 발주를 공식 확인. Hengli가 탱커를 넘어 LNG선·컨선까지 소화할지 지켜볼 필요. 한국은 HJ중공업이 Navios 10,100-TEU 4척(총 8척), 제이오션중공업이 탱커 10척을 수주하며 탱커 호황에 군산조선소가 예상보다 빨리 가동 재개, HD현대중공업은 CLdN RoRo 2척과 Latsco VLGC 1척 수주

(조선/방산/기계 최광식)

• **자동차(Overweight):** 글로벌 자동차는 저 PBR OEM의 이익 사이클 전환과 함께 10년 만의 M/S 변곡점 진입. 중국 자동차는 이구환신 이후 해외판매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EU 시장에서의 경쟁력 검증 본격화. 일본 OEM은 HEV 주류화에 맞춰 토요타/혼다/닛산의 북미 판매 회복 전략에 주목. HMG는 700만대 이후 Volume Cycle 재개와 미국 시장 경쟁력 회복을 바탕으로 이익 재성장 기대. 완성차 밸류에이션은 지배구조 개편과 Boston Dynamics 옵션 가치 현실화가 재평가의 핵심 근거. Top Picks: 기아, 현대모비스

(자동차/이차전자 유지웅)

• **한울바이오파마/BUY/6.5만원:** IMVT-1402 CLE 임상 1차 평가지표 통계적 유의성 미달로 개발 중단, 다만 기존 파이프라인 가치 영향은 1,000억원 미만으로 제한적. GD·RA·MG·CIDP·SjD 임상은 기존 일정 유지, 2H26 D2T RA 결과 및 FDA 피드백이 향후 등록임상 설계의 핵심. CLE 중단 영향은 제한적이나 WACC 상승 반영하여 적정주가 6.5만원으로 하향

(의료기기/화장품 박종현)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93.5%	HOLD : 6.5%	SELL : 0.0%
-------------	-------------	-------------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 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